



관광안내

Chogok Yonggul
Chotdae bawi Rock Trail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

촛대바위길 소개

작은 고깃배가 드나들 수 있고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한 장소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 초곡용굴은 해금강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근 일대가 갖가지 아름다운 바위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초곡 용굴 촛대바위는 깨끗한 바다와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뽐낸다. 512m 데크길과 56m 출렁다리 등 총연장 660m의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탐방로가 조성되어 해안절경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용굴설화

먼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죽은 구렁이가 바다 한가운데 똥똥 떠 있었다. 백발노인이 나타나더니 어부에게 말하기를, “저 죽어 있는 구렁이를 손수 데리고 근덕면 초곡리에서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근덕면 이케 웬일인가?

이튿날 아침 배를 타고 나가 보니 정말 죽은 구렁이가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게 아닌가? 어부는 뜻밖의 일이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을 되새기며 용기를 내어 지금의 초곡 용굴에 끌고 왔다. 그리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죽었던 구렁이가 살아서 움직이며 굴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죽었던 구렁이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이다. 이런 괴이한 일이 있던 다음부터 그 어부에게는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 얼마후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이다. **초곡리의 이 동굴을 용굴**이라고 부르며, 그 동굴 속으로 작은 고깃배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부근 일대가 촛대 바위를 비롯한 갖가지 아름다운 바위들이 즐비하게 자리잡고 있으므로 “해금강”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관람료 무료

▶ 개장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입장마감 17: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입장마감 16:00)

▶ 휴관일

연중무휴 (단, 기상특보 발령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

취사행위, 주류, 음식물 섭취를 위한 반입금지

반려동물 : 반려동물 케이지 사용에 한하여 입장가능

▶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이용

삼척터미널 → 임원,호산행 시내버스(24번)이용

☞ 승용차 이용 / 네비게이션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36~20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38번지

▶ 해양관광센터 (안내전화) ☎ 033-575-4605

▶ 주변 관광지

초곡해수욕장, 문암해수욕장, 황영조기념공원, 용화해수욕장, 장호해수욕장, 해양레일바이크, 삼척해상케이블카, 해신당공원, 장미공원, 수로부인현화공원, 장호비치캠핑장



해양레일바이크



황영조기념공원



삼척해상케이블카



해신당공원



수로부인현화공원



장호비치캠핑장



삼척시
SAMCHEOK CITY

초곡용굴쫓대바위길 안내도

Chogok Yonggul Chotdae bawi Rock Trail Information Map



▶▶ 용굴



초곡 용굴은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가진 굴입니다. 굴 안은 천정이 뚫려 빛이 들어옵니다. 덕분에 바다 밑으로 아름다운 수초와 그 사이를 오가는 예쁜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6.25 때는 마을 주민들이 배를 타고 이곳에 며칠간 숨어 지냈다”는 아픈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 출렁다리



철조망으로 해안가를 거닐기 어려웠던 이곳에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11m 높이에서 내려보는 바닷속의 풍광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다리중간의 유리를 통해 초곡 바다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겨 보세요.

▶▶ 인공폭포



유구한 세월동안 자연이 조각한 기암괴석 절경 사이로 약 20미터 높이의 절벽 아래로 거대한 인공폭포가 힘찬 물줄기를 쏟아 냅니다. 천혜의 비경과 더불어 보기만 해도 짜릿한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 쫓대 바위



초곡용굴쫓대 바위는 다른 곳과 달리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해안가 접근로가 없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만 볼 수 있었죠. 그동안 베일에 싸여졌던 초곡의 쫓대 바위가 마침내 멋진 모습을 뽐냅니다.

▶▶ 거북 바위



커다란 바위 맨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는 예전부터 잡귀를 쫓거나 마을사람들이 간절한 소망을 빌 때 자주 등장하던 신령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두 손을 모으고 거북이에게 소원 하나씩을 빌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 피라미드 바위



출렁다리에서 보던 거북바위가 다른 각도에서는 피라미드 바위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옮겨놓은 것처럼 생긴 바위에 거북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연의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 사자 바위



하늘을 노려보는 사자 머리모양의 바위로 지금부터 1500년 전, 신라 실직주의 군주였던 이사부는 신라에 항복하지 않던 우산국(지금의 울릉도)을 정복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워낙 용맹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던 이사부는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배에 싣고 가서 항복하지 않으면 맹수를 풀겠다고 위협하여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때 사자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 포토존



▶▶ 전망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